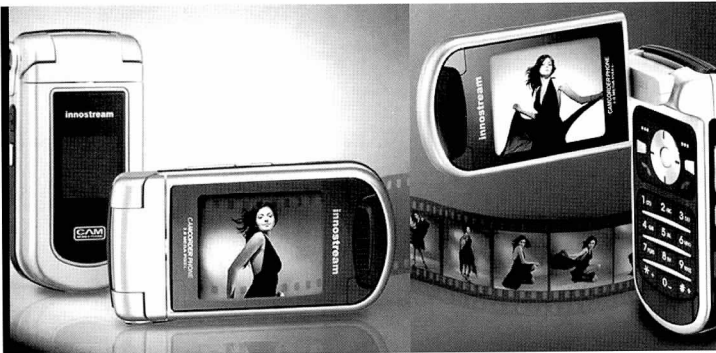


휴대폰(&솔루션) 개발 국내벤처 동향

삼성·LG전자 협력사 상당수 ... 자체 브랜드 추구도 활발

현재 휴대폰 국내 벤처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사실 가능하기 곤란하다. 수면 아래서 활동하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할 뿐 아니라 또 적지 않은 업체가 시장에 적응하지 못해 퇴출됐거나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60개 이상의 업체가 활동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것도 짐작일 뿐이다. 40여개 휴대폰 벤처들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최근 동향을 정리했다. 일부 국내 휴대폰 솔루션 개발 업체도 첨가했다. 관련 내용은 각사 홈페이지를 참조했다.

글 | 김종율기자(모바일타임스, people@cellular.co.kr)



이노스트림

고피스

2002년 설립된 휴대폰용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이다. 삼성전자 파트너 업체로 익히 알려져 있다.

2004년 8월 삼성전자의 LG텔레콤향 WIPI폰 S/W 개발을 비롯해 그해 10월 삼성전자의 LG텔레콤향 카메라폰 S/W 개발 계약을 체결기도 했다.

05년에도 삼성전자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3월 삼성전자의 LG텔레콤향 DMB폰 S/W 및 4월 삼성전자의 LG텔레콤향 MP3폰 S/W 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뉴젠텔레콤

최근 동향은 소개돼 있지 않지만 2004년경 작성된 듯한 자료에 세계 최 소형 단말기를 개발해 NEC브랜드로 판매된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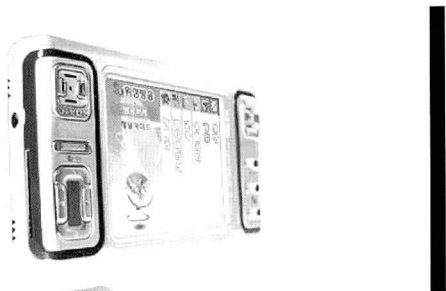
홈페이지에 소개된 일부 휴대폰의 경우 원형에서부터 정사각형 모델, 키패드가 LCD를 감싸고 있는 듯한 바형 등 특이한 디자인이 상당수 눈에 띈다.

바콤와이어리스

1999년 컴팔의 투자로 설립된 회사다. 작년 4월 VC-5D 모델명으로 카메라폰을 출시했다.

모빌랩

2000년 4월 설립된 직원 95명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다. CDMA 및 GSM방식에 걸쳐 소프트웨어를 포팅할



유비스타

수 있다.

다보텔레콤

2003년 12월 설립된 휴대폰 생산 전문 업체로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종업원은 150명 정도 된다. SMT 기준 월 생산대수는 15만~20만대이고, 조립 및 검사 라인은 월 15만 대 수준이다.

다이시스

2000년 11월 '포맨텍'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다이시스로 사명을 개정한 영상관련 S/W개발 전문 회사이다. 작년 09 '휴대통신기기 감지장치 및 그 방법'으로 특허를 받기도 했다.

맨크레드

04년 1월 설립된 CDMA/GSM용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회사이다. UI·SMS·VOD 솔루션·멀티미디어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04년 3월 삼성전자의 VOD폰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모드멘

2002년 9월 설립된 CDMA 및 GSM방식 휴대폰과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자본금은 6억원이며, 직원은 100명이다. 고가모델부터 중저가 모델까지 다양하게 걸쳐 휴대폰을 개발하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벨웨이브

국내 휴대폰벤처 중흥기를 이끌었던 업체이다. 2005년 들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업계에 알려졌지만, 벨웨이브 측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상태. 작년 6월 벨웨이브 러시아 사무소(모스크바) 및 4월 벨웨이브 중국사무소(심천)를 오픈했을 만큼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비유컴

2000년 설립됐으며, 2001년 11월 GSM단말기 수출을 개시했던 GSM방식 휴대폰 전문 개발 업체이다. GSM방식의

100·400·500·800 등의 시리즈로 휴대폰을 출시한 바 있으며, 미국 영국 중국 독일 브라질 등에 사무소를 두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세링스

2002년 설립된 CDMA·GSM 및 WCDMA 단말기 개발 업체이다.

과거 맥스전자의 휴대폰을 개발해준 업체로 유명하다. 맥슨의 최초 카메라폰을 개발한 곳이 세링스였으며, 이 모델은 세계적으로 80만대 가량 판매된 빅히트 제품이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현재 국내 모 메이저 휴대폰 업체 파트너사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년 05 출시된 GSM/GPRS 중국향 반자동 스위 카메라폰, 04년 07월 개발된 GSM/GPRS 반자동 스윙 인테나폰, 04년 11월 W-CDMA 폰, 05년 01월 북미향 CDMA폰 등이 이 회사 개발 주요 제품이다.

스카이스프링

2004년 9월 설립된 GSM 휴대폰 전문 업체로 소개돼 있다. 홈페이지에는 SP-710 모델이 게시돼 있다. 또한 독일의 모바일전문지인 '커넥트'지에 이 회사 제품이 소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스프레드텔레콤

2000년 설립된 회사로 북미향 트라이모드 휴대폰 개발 경력을 가지고 있다. H 및 S사와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기도 했다. 주로 CDMA방식 휴대폰을 개발했다.

아크로텔레콤

99년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이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CDMA방식 휴대폰 개발용역을 일부 수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애니데이터넷

2000년 설립된 회사로 모듈을 주요 개발품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휴대폰을 개발한 이력도 표기돼 있다.

에버콤

99년 설립된 GSM단말기 개발 회사. 최근 PMP 개발로 사업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중국 및 남미에 휴대폰을 수출한 이력을 갖고 있다.

에스엠텔

2003년 삼성전자 휴대폰 개발 전문 업체로 설립됐다. 2003년 국내 및 수출용 CDMA 휴대폰을 개발했으며, 2004년 CEO폰 및 웰빙폰을 개발했다.

에이엠텔레콤

2001년 설립된 회사로 휴대폰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다. 04년 75억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100여명의 직원 중 90여명이 연구인력이다. 2001년부터 LG전자의 CDMA단말기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에이치텔레콤

2002년 11월 설립돼 LG전자의 휴대폰 단말기 협력업체로 활동하고 있다. CDMA 및 GSM분야에 걸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LG전자의 쿼터폰도 이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13번에 걸쳐 LG전자와 휴대폰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지상파DMB 단말기로 사업영역을 넓혀 제품개발을 완료했다. 특히 지상파DMB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관련 단행본도 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 회사 창립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관련 사진이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 05년 50억원, 06년 75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엑사텔레콤

2000년 9월 설립된 휴대폰 단말기 및 응용제품 개발 회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2003년 이후 기록이 미흡하다.

엠브릿지

99년 설립된 휴대폰용 솔루션 업체이다. 설립 이후부터 꾸준히 삼성전자와 제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비스타

1992년 설립된 회사이다. 04년 467억원 매출을 기록했으며, 05년 1700억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직원은 현재 110명이다.

'유비스타'라는 최근 상호는 낯설지 몰라도 이 회사는 '인텔링스'라는 상호로 잘 알려져 있으며, 04년 8월 '엑세스텔레콤'과 합병으로 회사되기도 한다. 05년 3월 상호를 유비스타로 변경했다. 03년 3월 위성DMB단말기 시제품을 출시했으며, 05년 1월 킬컴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도 했다.

주목받는 위성DMB단말기 '센시오'는 대용량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의 강력한 부가 기능들을 하나의 단말기로 통합시킨 컨버전스 제품이다.

유정시스템

92년 설립된 이 회사는 LG전자의 CDMA단말기 개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LG전자용 휴대폰 개발 모델이 배치돼 있다.

이노스트림

GSM휴대폰 전문 개발업체이다. 자체 브랜드로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업체로 거론되기도 한다. 최근 발표한 스위블형 휴대폰은 2메가 픽셀 카메라를 지원한다.

모티스

2002년 설립된 모바일 솔루션 개발 업체이다. 이력으로는 05년 MP3지원 단말기 S/W, 04년 MMS지원 단말기 S/W 및 위피 탑재 단말기 S/W, 03년 카메라지원 단말기 S/W 개발 등이 있다.

에세텔

2001년 4월 설립된 휴대폰 개발 업체이다. 2003년 SCH-X559 CDMA폰(중국향), 2004년 SCH-E430 CDMA폰(국내향) 등 삼성전자 휴대폰을 개발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자강

무선호출 개발 회사때부터 명성을 가졌던 와이드텔레콤이

작년 12월 상호명을 '자강'으로 변경했다. 대표도 기존 김재명 사장에서 이희재 사장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450MHz대 휴대폰을 주력으로 다양한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지온네트웍스

모바일 솔루션 업체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수출형 휴대폰에 자바를 포팅한 경험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휴대폰의 주소록을 동기화시키는 '모비고'가 있다.

큐라이프

2000년 설립된 회사로 휴대폰 및 유선통신 단말기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2003년 SK텔레콤 및 중남미 사업자용으로 CDMA휴대폰을 개발한 이력이 있다.

텔레웍스

2003년 설립된 CDMA 및 GSM방식 휴대폰 개발 업체이다. 직원수는 40명 정도로 표기돼 있다. GSM방식 휴대폰을 비롯해 DMB 단말기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포모컴

2002년 설립된 회사로 LG전자의 휴대폰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2002년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매년 LG전자 휴대폰을 연간 1개 개발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터보테크

88년 설립된 회사로 2002년부터 휴대폰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LG전자의 협력업체로 활동한 이 회사는 04년 09 바 타입의 30만 화소 카메라폰(LG-SD860) 및 04년 3월 30만 화소 슬라이드형 카메라폰(LG-SD840)을 출시기도 했다. 최근 대표 '분식회계'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텔레웨어

2001년 설립된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이다. 삼성전자 휴대폰 협력사로 활동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텔리안

MOBILE PHONE

MOBILE PHONE

97년 설립된 회사이다. 벤처로는 드물게 TDMA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다. MTD-7500 휴대폰이 이 회사 개발 제품이다.


지엠씨텍

99년 퓨처텔로 설립된 회사이다. 2005년 회사명을 지엠씨텍으로 변경했다. 설립 이후 CDMA방식 휴대폰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05년 4월 GSM방식 휴대폰 개발을 위해 넥스페이스의 GPRS 사업부를 인수했다.

필아이티&햄팩스

모바일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로 삼성전자 협력업체이다. 필아이티는 삼성전자의 퓨처 휴대폰 개발에, 햄팩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개발에서 협력하고 있다.

지티텔레콤

2002년 설립된 휴대폰 개발 전문회사이다. CDMA 및 GSM방식 휴대폰을 개발해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초 유기EL 적용 휴대폰을 비롯해 매년 상당수의 삼성전자 휴대폰을 개발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스프레드텔레콤